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참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누구를 이용하려고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들춰내고, 배반을 잘 하는데, 이 사랑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면 잘나든 못나든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고 싶은 겁니다. 나를 필요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자꾸 말을 걸고, 가까이 가고 싶고, 집에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니까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왕이 되고,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시니 나라가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나라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을 해칠 자가 없는 겁니다. 세계적인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복되게, 가지 있게,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292, 310, 552장(중 택1) 다 갈 이
 주 기도 문 다 갈 이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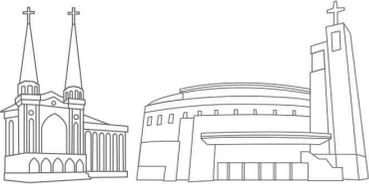


2 0 1 7

설 날

가정예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예 배 순 서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목 도 신 6:4-9(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다 같 이
- 찬 송 301, 304, 550장(중 택1) 다 같 이
- 성 시 교 독 다 같 이

인도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인도자: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다같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인도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 아 멘 -

기 도 가 족 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아침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17년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를 지나게 될 때, 기쁜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명절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 18:1 인 도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 씀 2017년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 도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눈을 뜨면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많은 사랑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참 사랑입니다.

오늘날 모두가 많이 배웠지만 지식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화가 발달했지만 문화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영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의 바구니입니다. 이 씨앗이 떨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사랑, 내 죽을 죄 대신 돌아가신 사랑,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모아도 이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참 사랑, 생명 있는 사랑, 살리는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으로의 사랑인 것입니다.